

신보

신보(공동대표 정재문(왼쪽)·송병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경영시스템을 정비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드라이브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신보는 지난 1월 대표이사 변경을 단행했다. 기존 박종규 대표가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25년 경력의 입사동기인 정재문·송병규 씨가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박종규 부회장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큰 밑그림 그리기에 나서고, 정재문·송병규 공동대표는 각각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총괄한다. 정재문·송병규 공동대표는 1993년 당시 박종규 부회장이 직접 면접을 통해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이들로 지난 25년간 신보의 성장과 궤를 함께해온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박종규 부회장은 "현장에서 차근차근 실무를 익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보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2016년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목표와 인재양성계획 등이 담긴 '비전 2020'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해에는 2114억원을 수주해 2010년 수주액 1033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난 2010년 173억원에 불과했던 해외수주액도 지난해에는 855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도 전국 순위 15위까지 올라섰다.

올해는 국내사업(1280억원), 해외사업(1100억원)을 포함해 수주 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쿠웨이트 Al-Zour LNG프로젝트, 베트남 SEV법인 전력계통 안정화 공사 등을 수주하며 해외시장에서도 수주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올해 해외건설대상에서 영예의 해외건설협회회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건설명가인 대기업들이 즐비한 이번 해외건설대상에서 신보는 유일한 전기시공

쿠웨이트·베트남 등서 굵직한 수주 잇달아 개성공단 협력기업 바탕 남북경협 '준비끝'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신보는 또 남북경협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경제협력에 활발하던 시기, 신보는 한전 개성공단 배전단가협력기업으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북한 내에서 이뤄진 전기시공으로는 최고의 실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회장은 "남북경제협력 물꼬가 터질 경우 북한 내 다양한 시공경험을 갖춘 신보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시현 기자 jshn@



한국서지연구소

한국서지연구소(대표 김선호·사진)는 서지보호 한길만을 고집스럽게 걸으며 연구개발을 진행한 끝에, 매년 25%에 달하는 이익률을 올리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지연구소는 주력제품인 슈퍼SPD(서지보호를 겸하는 EMP방호장치)와 현장분석·진단·컨설팅 등을 통한 맞춤형 낙뢰보호 솔루션을 무기로 경쟁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고 있다.

수년간의 연구개발 결과 김선호 대표는 2008년 서지보호기용 핵심 부품을 새롭게 개발해냈다. 개발 부품은 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 및 제어회로 'GCA 소자'로, 당시 신기술인증과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 등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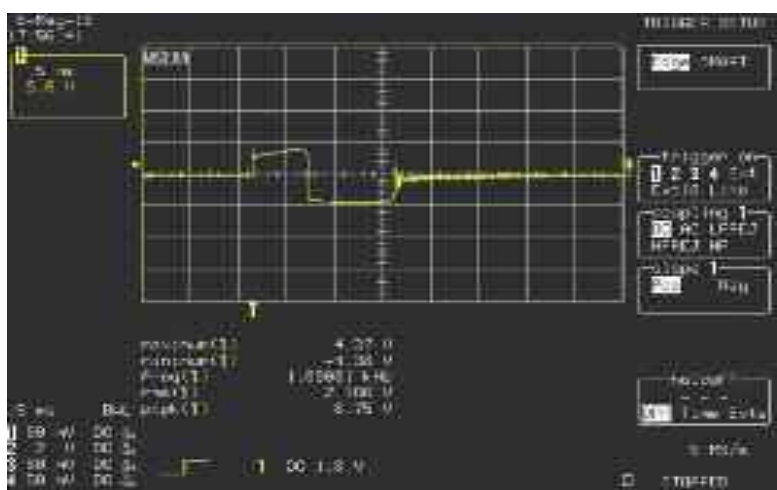
슈퍼SPD는 GCA 소자를 바탕으로 서지, EMP 보호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김선호 서지연구소 대표는 "GCA소자와 슈퍼SPD의 보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KSC IEC61643-11'에는 서지보호기가 적용돼 전원전압보다 낮은 제한전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정의한다. 사용전압보다 낮은 리미트전압을 가진다면 전원전압이 인가되면 리미트전압만큼만 남기고 단락돼 전원을 인가하는 즉시 서지보호기는 평 하고 터져 버린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 "이는 'MIL-STD-188-125-1'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여기서는 제한전압이 사용되는 전압보다 낮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서지보호기에 대한 규정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희 슈퍼SPD의 제한전압 즉 성능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 슈퍼SPD는 서지보호기와 EMP 프로텍터 두 규정을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서지보호 '한길' 매년 25%넘는 이익 창출 '맞춤형 낙뢰보호 솔루션' 타의추종 불허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에 따르면 슈퍼SPD에 서지, EMP가 입력될 때 20kV/10kA의 서지에 대해 8.5V의 제한전압, 50kV/2500A의 EMP(PCI)에 대해 0.1A의 제한전류 수치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보호성능으로 장비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지엔씨에너지

국내 발전기 업계 No.1 지엔씨에너지(대표 안병철·사진)가 신공장 건설을 통한 생산라인 확대와 개성공단비상발전기 납품 경험을 적극 활용, 남북경협에 대비해나갈 것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지엔씨에너지는 2004년 개성공단이 활성화될 때 현지에 비상발전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다. 당시 개성공단에 10여대의 발전기를 공급한 경험을 통해, 북한 환경에 적합한 비상발전시스템을 설계·제작·납품·유지보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았다. 지엔씨에너지는 이 같은 경험을 적극 활용, 남북경협 과정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대북송전사업에 참여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엔씨에너지 관계자는 "지금 북한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발전기를 가지고 가서 전기를 생산해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이 가능하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관련 시장이 열리면 개성공단발전기 공급 경험을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엔씨에너지는 이와 함께 공장 확장 이전을 통한 생산량 확대도 남북경협을 대비한 포석 중 하나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납품경험·공장확장 이전 등 통해 대북송전 사업 참여·업계 리딩컴퍼니도약



지엔씨에너지는 기존 북곡산업단지 에 위치한 공장을 석문국가산업단지 로 확장·이전한다. 신공장은 기존에 비해 10배가량 큰 규모로, 지엔씨에너지가 업계 1위로 올라서면서 부족해진 캐파를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전망이다.

남북경협을 통해 발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엔씨에너지 관계자는 "신공장은 기존 공장에 비해 10배가량 규모가 크다. 4만9500㎡(약 1만5000평) 부지 위에 총 3개 공장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하나하나가 기존 공장보다 큰 규모"라며 "총 3차연도에 걸친 공장 건설 사업 중 올해 1차 공장동 준공을 진행할 것이다. 생산량 확대와 재고 적체 해소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발전기 업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엔씨에너지는 상반기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며, 올해 전망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1분기 실적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었으며, 수주잔고도 700억원에 가까운 정도로 많아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분기 지엔씨에너지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4.8% 영업이익 44.2%, 당기순이익 195.6%가 증가한 267억9238만원, 22억6659만원, 48억3876만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초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는 등 올해 사업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 지난해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kube@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다 - 대한전기협회

전기로 열거는 국민행복세상

- Topia 실현!

소중한 삶의 가치를 아는 대한전기협회가
대한민국의 행복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국민행복 에너지, 전기

전력산업 발전, 전기설비 안전, 그리고 전기기술의 국제표준화 -
단계별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 TEL : 02-2223-3600 | FAX : 02-2223-3649